

2023년 정간사 회의록 (9월)

<p>일 시</p>	<p>2023년 9월 15일(금) 19:30 - 24:00, 16(토) 09:00-12:00</p>	<p>장 소</p>	<p>대전 헬몬 수양관 회의실</p>
<p>참석자 (13명)</p>	<p>김기우 김경옥 경옥 김만호 조 김성태 김진실 박세철 서철호 방호동 신원희 호이태영 랑이상찬 이우영 최남원 조숙형</p>		
<p>결정사항</p>	<p>1. 이미옥 간사님 총무 간사 문제 (제안자: 김만호)</p> <p>가. 교사선교회 총무 간사 일은 파트 타임으로 했었고, 요양보호센터 일을 주로 하셨음.</p> <p>나. 이번에 템 총무 간사 일을 주로 하게 되면서 보수 문제를 논의 해야함.</p> <p>결정 :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으셔서 연말에 결정하기로 함.</p> <p>2. 상담 (제안자: 김만호)</p> <p>가. 교사선교회 전용 상담 센터 운영(카카오톡으로 신청)</p> <p><< 결정할 사항 >></p> <p>가. 상담이 들어오면 권역별 간사님들이 상담의 진행을 해주셔야 함.</p> <p>결정 : 상담 연락이 들어오면 가까운 권역 간사님께 연결해드리기로 함.</p> <p>3. 이번 서이초 사건에 대한 공동체의 입장 제시 (제안자: 김진실)</p> <p>가. 입장 제시가 어려운 공동체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 부분이라도 제시 해 준다면 입장을 기다리는 회원들의 입장에서 좋을 것으로 보임.</p> <p>나. 선교회는 좋은 교사 운동의 회원단체이기에 기본 원칙은 좋은 교사 운동과 같은 입장이다.</p> <p>다. 특별한 상황으로 대표 간사나 사무국장이 국장 회의를 통해서 입장 문을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 지금은 시점이 조금 늦었다.</p> <p>라. 대표 간사님이 sns로 표현을 짧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런 간단한 의견 표현도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하지 않는 게 좋겠다.</p> <p>결정 : 간사리트릿이나 수련회 등을 통하여 언급해 주기로 함.</p>		

4. 김동현 간사님과 류창기 간사님과의 만남 (제안자: 김만호)

가. 이음이든 코어연구소든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결정 : 9-10월 중에 김동현 간사님과 약속을 하고, 류창기 간사님도 약속을 잡아서 수도권 간사님들과 함께 만나게 추진하기로 함.

<발제 1> 비전 2020 보고서 발표 그 후 10년 (제안자: 이상찬)

가. 2001년 11월 22일 비전 2020 전략 연구팀이 연구해서 사명선언문과 4대 가치, 비전선언으로 정하고 발표하고, 정간사 회의에서 통과됨. 교사선교회가 교육의 어느 부분까지 담당해야 하는지 논의만 하고 정해진 것은 없음. '기독교적 가르침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했음

나. 이것을 보고 생각해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단체를 사랑하신다.'를 다시 느낌.

<발제 2> 비전 위원회의 활동 (제안자: 김기웅)

가. 별무리 학교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는 상황에서 비전 소위원회 활동을 시작함. 2018-2019년에 하게 됨(나머지는 자료 참고)

나. 비전 별무리에서 나온 얘기 중 한 개는 '양육과 교육을 더 이상 이분화하여 생각하지 말자.'

<발제 3/> TEM, 2기 정간사 리더십"의 위치와 역할 (제안자 : 김상태)

가. 현재 양육과 교육의 대립의 상황에서 후배들에게 뭐라 얘기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의사 소통의 어려움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음.

나. 선교회가 양육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수련회 강사진을 보면 알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디모데 양육만 강조하고 있는 선교회! 신규 교사로서 힘든 것을 U3 캠프는 너무 좋다. 사역으로서의 양육이 아니라, 신규 교사의 템을 만들어 주길 원하고 있음.

<결정된 사항>

1. 내년 교육국을 가칭 별무리 네트워크로 바꾸면서 여러 단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연수를 만들어서 보급하자. 무장 과정연수, 홍세기 간사 노트 연수 등 필요 연수를 별무리 학교 연수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하자. 단,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진행을 하고, 이번 정간사 모임 때, 국장들을 초청해서 함께 제안하고 얘기하자.

	<p>2. 11월 3일 간사리트릿 때 김기웅 간사님께서 발제를 해서 이런 논의된 내용을 간사들과 공유하고 토의하자. 비전을 정간사들이 제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주축이 되는 지역 간사와 무장과정 통과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간사리트릿 때 계획된 첫날 선교 토의를 둘째 날로 변경하고, 일정을 변경해서 지체들이 많은 첫날 저녁에 얘기를 하자.</p>
<p>기타논의</p>	<p>1. 해외선교 흥세기 간사님 65세로 거취문제는 10월 정간사 회의에서 논의합시다. 그리고 내년 여름에 우간다로 선교 여행 어떠신가요?</p>